

광주 골목상권에 활력을...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동구, 충장로서 물품 구입시 환급 광산구, 11월까지 '천원페이백'행사

광주시 지자체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환급 행사'를 벌이고 있다.

고물가로 소비 활동이 줄어들면서 지역 상권이 침체하고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각 자치구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한 소비 환급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동구는 오는 13일부터 연말까지 충장로 일대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시내로 와우(WOW)'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행사는 충장 상권의 유동 인구 회복과 소비 촉진을 위해 기획됐다. 충장로 일일 상가에서 2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1인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충장상권 활성화를 위해 운영중인 '충장라운 페스타'와 연계해 이뤄진다.

'MZ:라운다'의 개막식인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을 시작으로,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9월 27일부터 28일, '가족라운다' 행사 기간인 오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다.

동구는 해당 행사들을 통해 지역 유동 인구 증가와 상점가 매출 증대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동구는 이번 행사를 위해 총 1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광산구도 오는 11월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소비 환급 행사 '천원페이백'을 시행한다.

이 행사는 광산구가 추진 중인 '천원 더(The)가치 프로젝트'의 세부 사업으로서 시행된다. 이는 고물가 시대에 가계경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천원거리, 천원한끼, 천원반찬, 천원택시, 천원병원동행 등 12가지 사업으로 구성된 프로젝트다.

광산구는 광산구 지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를 하면, 그 금액의 10%를 환급해 줄 계획이다. 환급은 매월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1인당 월 최소 1000원에서 최대 3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12월에는 누적 사용 금액이 5만원 이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광산구에 등록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6개 전통시장과 1개 상점가, 32개 골목형 상점가 등에 있는 가게 2000여곳이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관련 앱을 통해 금액을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이번 행사로 시민들은 쓸쓸한 혜택을 받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소비 촉진 효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의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안전도시' 광산구, 2025 재난관리평가 최우수

국무총리 표창...제주항공 참사 대응·디지털 침수 시스템 등 호평

광주시 광산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사진〉 광산구는 지난 2022년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이후 3년 만에 다시 표창을 받았다.

재난관리 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종합 평가다.

이번 평가는 각 기관의 재난관리 역량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공통,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5개 분야에 걸쳐 연간 실적과 재난관리 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광산구는 이번 평가에서 실제 재난·사고 대응 사례, 기관장 대상 재난 대응 심층 인터뷰, 현장 중심의 재난대비, 훈련 첨단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대응 역량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재난·사고 대응 사례 부문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응 과정에서 광주시와 협력해 유가족 전담 지원반, 장례지원반을 운영한 점에서 인정을 받았다.

지난해 재난대비 상시훈련으로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받은 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해 도시 침수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 점 등도 호평을 받았다.

광산구는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국무총리 표창 정부포상과 함께 1억 6000만 원의 특별교부세 및 포상금 등 성과급(인센티브)도 지원받는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모든 공직자와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 도시 광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최승철 기자 srchoi@kwangju.co.kr

서구,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83개소 점검 차량 6대 적발

광주시 서구가 무료 공영주차장 내 1개월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 조치에 나섰다.

서구는 최근 서구시설관리공단과 협력해 관내 노상·노외 무료 공영주차장 83개소를 점검하고 장기 방치된 차량 6대를 적발, 강제 견인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구는 각 차량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자진 이동을 안내했으나 연락두절 등으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강제 조치했다.

서구는 견인된 차량을 일정 장소에 1개월여 동안 보관하고, 공시송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를 안내할 방침이다.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을 시 차량을 폐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주차장법'이 개정된 데 따라 이뤄졌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고정 주차된 차량(분해·파손 등 운행 불가 차량은 15일 이상)에 대해 강제 이동이 가능하다.



광주시 서구가 최근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하고 있다. <광주시 서구 제공>

서구 관계자는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해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발견하는 즉시 신속하게 정비해 쾌적한 주차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시 신속하게 정비해 쾌적한 주차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남구 '2025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하세요

6곳 선정 멘토링·사업비 등 지원

광주시 남구가 특출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초기 창업자에게 사업 자금 등을 지원한다.

남구는 오는 27일까지 '2025년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은 뛰어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초기 창업자를 선발해 사업화 자금과 제품 디자인 개발비, 홍보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처음으로 국비를 투입해 공모전 규모를

확장, 총 6815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방침이다.

남구는 협력 업체로 참여한 광주대와 함께 창의적이며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우수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 업체 6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남구는 1·2차 심사에 이어 3차 현장 점검까지 실시해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 6개 업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에게는 창업비용을 포함해 홍보 마케팅, 재료비, 디자인 개발비, 마케팅 프로듀싱, 제품개발 및 패키징 비용 등 1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오는 8월부터 스타트업 창업 교육과 맞춤형 멘토링, 전문가 현장 방문 교육에 참여하며, 오는 9월부터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다.

지원 자격은 접수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내에 있는 예비 창업자이거나, 사업자 등록지가 남구이면서 지난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개업한 초기 창업자이다.

공모전에 참가 서류를 제출한 예비·초기 창업자는 오는 7월에 열리는 1차 창업 기본 교육과 2차 전문가 대면 심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공모전 관련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구청 일자리정책과(062-607-2673)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북구 광융합무역촉진단, 240억 규모 수출계약

베트남·태국서 현지기업과 비즈니스 미팅 현장계약 성과

광주시 북구가 '2025년 북구 광융합무역촉진단'을 꾸려 1750만달러(240억여원) 규모의 수출 계약 성과를 거뒀다.

북구는 지역 광융합산업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베트남과 태국에 파견한 무역촉진단이 240억여원 상당의 수출 계약 성과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무역촉진단은 지난 2023년부터 지역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성장 기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결성됐다. 무역촉진단은 북구와 지역의 기업 관계자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는 광통신, 광의료, AI 기반 광융합기술 등 3개 분야 12개 기업이 참가했다.

이들은 베트남과 태국에서 스마트도시와 스마

트팜 확산으로 광융합 기술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지난 1·8일 베트남 하노이와 태국 방콕을 방문해 현지 기업과 비즈니스 미팅, 수출상담회, 현장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680만달러(93억여원) 규모의 실계약을 체결하고 1070만달러(146억여원) 상당의 수출 약정계약을 맺었으며, 370만달러(50억여원) 규모의 기업 간 MOU를 체결했다.

북구 관계자는 "광융합무역촉진단은 경쟁력 있는 북구 소재 기업이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적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지역 기업이 활약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보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